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책

헤드라인뉴스 약 4조 원 규모의 2021년 첫 경기부양책 마련
산업·경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
올해 ‘코로나19 예산’ 편성

사회·복지

코로나19 신속 검사제도 확대 시행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무료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인 노숙자 지원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암스테르담	장한빛	시카고	김영준	뉴델리	박원빈
베를린	신희완		강기향		박효택
	유진경	하와이	임지연	자카르타	박재현
	홍남명	휴스턴	이경선	도쿄	박재호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상파울루	김현아	오사카	권용수
하노이	이희재	스톡홀름	문선우	베이징	박성은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허윤희	상하이	문혜정
뉴욕	윤규근	바르셀로나	진광선	에드먼턴	장지훈
	이수진		박정수	토론토	고한나
	이정근	싱가포르	이은주		김용훈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런던	정기성	보르도	김준광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비엔나	안병선	파리	김나래
시애틀	강민규	로마	서동화	시드니	정용문
		피렌체	김예름		

약 4조 원 규모의 2021년 첫 경기부양책 마련

말레이시아 / 산업·경제

말레이시아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약 4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 이는 지난해 4차에 걸쳐 시행한 약 80조 원 규모의 지원책에 이은 것으로 코로나19 극복, 국민 복지 증진, 내수 활성화를 주요 골자로 함

배경

-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경제 악화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0년 2월 27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처음 마련한 이래 3월 27일, 4월 6일, 6월 9일까지 4차에 걸쳐 말레이시아 국내총생산(GDP)의 20%에 달하는 약 80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
 - 하지만 2021년 1월 기준 일일 확진자 수 4,000명을 넘기면서 심각한 코로나19 재확산을 겪게 되자 1월 11일 이동제한령을, 1월 12일에는 비상사태를 선포
 - 이동제한령과 비상사태 선포로 인해 경기 침체가 우려되자 1월 18일 코로나19 극복과 국민 복지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한 150억 링깃(약 4조 1,454억 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PERMAI) 발표

이동제한령 및 비상사태 선포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이동제한령 선포
 - 1월 11일 무히딘 야신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세 통제를 위해 2주간 이동제한령을 시행한다고 발표
 - 1월 13일부터 5개 주(페낭·슬랑고르·말라카·조호·사바)와 연방직할구(쿠알라룸푸르·푸트라자야·라부안), 그리고 1월 16일부터는 클란탄주에 이동제한령(MCO) 시행
 - 이동제한령은 봉쇄조치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다른 주로의 이동 금지, 거주지 반경 10km 이동 금지, 필수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장 운영 금지 등을 포함
 - 또 5개 주(파항·페락·누그리 쉴빌란·끄다·프렝가누)에 2단계 봉쇄령인 조건부 이동제한령(CMCO), 사라왁과 브루리스 2개 주에 봉쇄 단계가 가장 낮은 회복 이동제한령(RMCO)을 적용

- 1월 12일 말레이시아 왕궁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사태 선포
 - 1월 11일 말레이시아 총리는 왕궁에 비상사태 선포 동의를 요청했고 압둘라 국왕은 이에 동의
 - 2020년 10월 25일 무히딘 야신 총리가 비상사태 선포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보이자 국왕이 비상사태 선포에 동의
 - 비상사태는 오는 8월 1일까지인데, 확진자가 줄어들 경우 조기 종료 예정

경기부양책(PERMAI)의 주요 내용

- 코로나19 극복
 - 4개 이니셔티브의 지원책 마련
 - 코로나19 백신 도입, 3,500명의 의료진 추가 투입을 통한 의료인력 확대. 민간 병원과의 협력 강화,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 국민 복지 증진
 -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 복지 증진을 목표로 8개 이니셔티브 마련
 - 월 가구소득 5,000링깃(약 140만 원) 이하 가구에 300링깃(약 8만 원), 월 가구소득 2,000링깃(약 50만 원) 이하의 미혼 가구에 150링깃(약 4만 원)을 지급하는 Bantuan Prihatin Rakyat(BPR) 지원책 확대
 - 빈곤층 아동 영양 개선책(Food Basket Programme)과 GLIC/GLC 재난지원금 마련 등 대국민 지원책 확대 및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에 대한 세금 감면
 - 대출금 상환 유예 및 감면
 - 일부 대상자에 한해 근로자공제기금(EPF) 인출 승인
 - 핸드폰·컴퓨터·태블릿 관련 조세감면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1.0GB 무료 인터넷 지원 기한을 2021년 4월 30일까지 연장
 - 차량 판매세 6% 면제 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
 - 코로나19 피해 및 홍수 피해를 입은 대상자에 한해 PTPTN 대출 상환 유예
- 내수 활성화
 - 10개 이니셔티브의 지원책 제공
 - 이동제한령이 시행된 州에 근무하는 노동자 가운데 대상자에 한해 600링깃(약 15만 원)의 임금 보조금 지급
 - 사바州에 적용한 Prihatin Special Grant Plus 지원책을 전국으로 확대. 이에 따라 이동제한령이 시행된 지역 내 중소기업에 1,000링깃(약 26만 원), 기타 지역 내 중소기업에 500링깃(약 13만 원) 지급

- 관광 안내원, 택시 운전자, 학교차량·관광버스·임대차량·공유차량서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500링깃(약 13만 원) 지급
- 소액 용자 제도 마련
- 온라인 구매 독려 캠페인 시행
- 2차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500억 링깃 규모의 금융 지원책(Danajamin PRIHATIN Guarantee Scheme) 확대 적용
- 임대료를 30% 감면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특별 세금 감면
- 2021년 3월까지 6개 업종(호텔·테마파크·컨벤션센터·쇼핑몰·국내항공사 사무소 및 관광 업종) 대상으로 전기세 10% 감면 및 2021년 6월까지 모든 가구 대상으로 전기세 환급
- 관광버스, 택시 등 구매 및 임대해 대해 12개월 대출금 상환 유예 및 감면
-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 지원책 'Covid-19 act 2020' 연장

<https://www.pmo.gov.my/2021/01/special-announcement-on-the-perlindungan-ekonomi-rakyat-malaysia-permai-assistance-package/>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asia/malaysia-pm-muhyiddin-economic-aid-package-covid-19-13986120>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

미국 캘리포니아주 / 산업·경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의 주 중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면서 동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정책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심각. 캘리포니아주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경감, 대출 지원, 채무 면제 및 강제퇴거 중단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

배경

-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의 주 중 가장 많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발생
-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의 주 중 주의 총생산(Gross State Product, GSP)이 가장 많은 주
 - 2018년 기준 3조 1천 달러로 국가로 따지면 세계 5위
-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19 팬데믹 초반부터 확진자의 급증으로 봉쇄 등의 조치를 취해 경제적 피해가 심각
 - 2020년 2월 3.5%였던 실업률은 2020년 평균 10.8%를 기록
 - 약 150만 명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실직
 - 2022년이 되어야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캘리포니아주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구제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마련

주요 내용

- 세금 경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 기업체 및 고용주에게 세금 등의 납부 연기 및 세액 공제
 -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4월 30일 사이에 완납해야 하는 세금과 수수료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
 - 영세사업자가 새로 채용하는 직원 1명당 1,000달러의 세액 공제(사업체당 최대 10만 달러 한도)

- 과세 대상 매출액이 5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의 경우 최고 5만 달러까지 판매세(sales tax)와 이용세(use tax)의 과세를 무이자로 연기
- 코로나19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준 영세사업체는 연방 세액 공제

○ 대출 지원

- 영세업자 대출 지원을 위해 캘리포니아 재건 기금(California Rebuilding Fund)으로 자금 제공
 - 캘리포니아 재건 기금은 2020년 11월 20일 출범하여 향후 1년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
 - 은행은 중소기업을 위해 저렴한 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
- 5천만 달러의 州정부 자금을 지원하여 캘리포니아 인프라 및 경제개발은행(IBank)을 통해 중소기업 재난구조 대출 보증 프로그램(Small Business Disaster Relief Loan Guarantee Program) 및 중소기업 대출 보증 프로그램(Small Business Loan Guarantee Program)을 시행함으로써 취약한 영세업체에 대한 대출 지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재난구조 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95%의 대출을 보증함으로써 기존 대출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중소기업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해당 중소기업은 대출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후 며칠 내로 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음

○ 채무 면제

- 기존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대출자를 위한 중소기업 채무 면제
 - 직원이 500명 이하인 중소사업체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소액 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부채 구제 프로그램(SBA Debt Relief)을 통해 기존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대납

○ 기타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 PPP 자금을 받은 사업체는 부채 무효화 신청 가능
 - 2020년 12월 현재 신규 신청을 받고 있지는 않음
- 경제 피해 재난 융자(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 EIDL)
 -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 중소기업체와 비영리단체에 각각 3.75%와 2.75%의 금리로 최대 200만 달러까지 직접 융자 제공

- 최대 1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EIDL 선지급도 운영하였으나, 2020년 12월 현재 중단
- 중소기업 센터(Small Business Centers) 운영
 - 전문가가 직접 상담 등의 지원 제공
 - 무료 1:1 컨설팅 및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시행
- 상업용 건물 임차인 대상 강제퇴거 중단 조치 시행
 - 상업용 건물 임차인에 대한 강제퇴거를 중단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권한 부여
 - 2021년 5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상업용 건물 임차인의 강제퇴거를 지방정부가 중단할 수 있는 주지사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2020년 9월 23일 발표

정책 평가

-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마련
 - 캘리포니아주는 세금 경감, 대출 지원, 채무 면제, 부양 프로그램, 강제퇴거 중단 등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 마련
-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으로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
 - 캘리포니아주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캘리포니아 인프라 및 경제개발은행과 민간 은행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 마련

<https://covid19.ca.gov/business-and-employers/>

<https://www.latimes.com/business/story/2020-09-30/california-economy-ucla-anderson-forecast>

<https://www.gov.ca.gov/2020/11/20/governor-newsom-announces-launch-of-california-rebuilding-fund-to-help-states-smallest-businesses-protect-their-california-dream/>

이 경 선 통신원, kyungsunlee14@gmail.com

올해 ‘코로나19 예산’ 편성

프랑스 파리시 / 산업·경제

프랑스 파리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교육시설 정비와 실업자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하는 2021년 예산을 편성. 또한 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연예술인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대책을 추진할 계획

배경

- 영국 및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우려
 - 프랑스는 작년 크리스마스 방학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2021년 2월 현재 하루 2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
 - 코로나19 백신의 빠른 접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프랑스인들의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실제 접종률과 접종 의지가 낮은 편임
 - 1월 18일부터 75세 이상 노인, 요양보호시설의 장애인과 이곳에서 일하는 50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 실시

주요 내용

- 2021년 파리시의회 예산에 코로나19 관련 지원자금 편성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입 감소와 의료 지원금 확대, 중앙정부의 분담금 축소 등으로 2020년에 비해 시의 재정수입이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는 2천만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
 -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부동산 매매 공증 수수료가 3.8% 감소하고, 기업 부가가치세가 3.3% 감소할 것으로 예상. 일 드 프랑스 수도권 지역으로 파리시를 확장하는 ‘그랑 파리(Grand Paris)’ 프로젝트 공사 역시 차질을 빚게 됨
 -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시설 정비와 교직원 고용안정을 위해 시 재정의 시설관리 부문 예산을 2% 정도 늘려 총 39억 4천만 유로를 지원할 예정
 - 실업자 및 구직자를 위해 작년과 비교하면 2,500만 유로가 증가한 총 3억 8,500만 유로를 지원
 - 2020년에 설치된 6개의 응급검사센터에 750만 유로를 투자할 예정

-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대상 국가 지원
 -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식당 및 관광업 등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작년 3월부터 2019년 수익을 기준으로 국가지원금(Fond de Solidarité)을 매달 지급하고 있는데, 이 지원정책을 2022년 6월까지 연장할 계획
 - 작년 3월부터 시행한 국가 보증 대출(FGD)의 유예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
- 파리市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인 지원책
 - 작년 12월까지 중소기업인들을 위해 무료 법률 자문을 시행
 - 소상공업 활성화를 위해 배달 및 픽업이 가능한 주변 상점들의 디지털 지도 및 종이 지도를 만들어 배포
 - 사업장 운영을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월세와 관리비를 감면
 - 독립영화 제작을 위해 최소 5,000유로에서 최대 40,000유로를 지원
 - 출판산업을 활성화하고 동네 서점을 살리기 위해 40여 개의 문화 산업체와 협약을 맺고 31만 5,000유로를 투자
 - 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문화산업 다양화' 프로젝트를 통해 20여 개 기업 및 산업체와 협약을 맺고 13만 5,000유로를 투자
- 공연예술인을 위한 긴급자금 신설
 - 2020년 5월에 문화부와 파리市는 봉쇄령 이후 공연예술산업을 위한 긴급자금을 마련
 - 춤, 서커스, 거리공연, 인형극 등의 공연예술과 독립영화 제작자들이 지원대상 (음악공연의 경우 별도의 지원자금을 운영 중)
- 청년실업 지원금은 올해 1월 이후에도 연장 지급
 - 26세 미만 청년들 중 3개월 이상 장단기 계약직에 대해 연간 4,000유로를 지원, 교육 체험 및 인턴십은 5,000유로 혹은 8,000유로를 지원
 - 이 제도는 청년층이 장단기 계약직에 취업하는 데에 도움을 줌
 - 노동부는 청년실업 지원정책을 2021년 1월 이후에도 연장 시행

정책 평가

-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육 정상화를 위해 초·중·고등학교는 정상수업을 시행. 이를 위해 파리市는 먼저 교육시설을 정비 및 확충하고 인력을 지원하는 데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음
- 실업자와 구직자에 대한 지원정책은 다년간에 걸친 지속적이고 충분한 지원금이 보장되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줌

<https://www.paris.fr/pages/covid-19-confinement-mesures-paris-15598>

<https://www.paris.fr/pages/coronavirus-soutien-aux-entreprises-parisiennes-7678>

<https://www.paris.fr/pages/creation-d-un-fonds-d-urgence-pour-le-spectacle-vivant-7804>

<https://www.msn.com/fr-fr/actualite/monde/contaminations-%c3%a9lev%c3%a9es-en-france-loms-inqui%c3%a8te-pour-leurope%e2%80%a6-le-point-sur-le-coronavirus/ar-BB1czv6l?ocid=msedgntp>

<https://www.msn.com/fr-fr/actualite/france/le-spectre-du-troisi%C3%A8me-confinement-plane-sur-la-france/ar-BB1d2QWS?ocid=msedgntp>

김 나 래 통신원, kim.narae@kakao.com

코로나19 신속 검사제도 확대 시행

캐나다 앨버타주 / 사회·복지

캐나다 서부 앨버타주는 국경 및 공항의 코로나19 신속 검사제도를 국내 최초로 시행하여 여행자의 격리기간을 현저히 줄임으로써 원활한 산업활동과 여행자 편의, 여행업계의 회복을 도모. 나아가 신속 검사제도를 장기요양시설 및 노숙자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고위험군의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배경

- 정부의 해외여행 자제 권고에 따른 여행 및 항공업계의 어려움
 -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연방정부는 불필요한 여행 자제 권고를 내린 바 있음
 - 특히 인접국인 미국으로 필수 물자 및 인원을 제외한 이동 제한
 -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항공업계는 예년 대비 10% 수준으로 운영
 - 캐나다 서부 주요 관문인 캘거리 공항의 이용객 수는 2019년 대비 77% 감소
- 장기요양시설 및 노숙자시설 등 전염병 취약시설에서의 코로나19 사망자 급증

주요 내용

- 코로나19 신속 검사제도 시행
 - 이 프로그램은 캘거리 공항과 미국 인접 국경인 쿠틀(Coute)에만 적용되며, 여행자는 도착 5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프로그램 이용자는 최초 검사결과 수령까지 24시간~48시간 자가격리를 해야 함
 - 최초 검사결과가 음성인 여행자들이 두 번째 검사를 6~7일 안에 받으면 증상을 꾸준히 관찰하는 조건으로 14일 격리를 면제
 - 신속 검사제도 신청 대상
 - 귀국하는 캐나다인
 - 외국인 중 간병인과 장례식 참석자, 코로나19 대비계획을 가지고 지정 학습기관에 다니는 유학생, 취업 허가증 소지자 등은 신청 가능
 - 단, 14일 이내 체류자와 환승편 이용객은 해당되지 않음
- 신속 검사제도 확대
 - 미국 하와이주와 협력하여 2020년 11월 19일부터 하와이 여행 투숙객을 위한

비행 전 코로나19 검사프로그램을 시행

- 이륙 72시간 전에 유료 검사를 진행하여 음성 판정을 받은 여행자는 하와이 도착과 동시에 격리 면제
- 여행자 자비 부담을 원칙으로 1인당 150달러를 지불하여 검사를 진행
- 캐나다 국적 항공사인 에어 캐나다는 앨버타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온타리오주에 신속 검사시설을 마련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앨버타주 기반 항공사인 웨스트젯은 앨버타주에서만 검사 서비스를 제공
- 이 프로그램 발표에 대해 앨버타 여행업계의 반응은 고무적. 캘거리 기반의 웨스트젯은 하와이 주정부와 연계하여 이륙 전 코로나19 검사프로그램에 합의
- 확진자 수가 앨버타주보다 현저하게 적은 하와이에서 이 검사 서비스에 합의한 것은 그만큼 여행업계의 절실함을 보여줌
- 지역 이동식 신속검사센터 신설
 - 이동식 신속검사센터는 집단 감염이 발생된 장기요양시설, 노숙자시설 등의 고위험 시설을 찾아가 신속 진단검사를 하게 됨
 - 검사 시행 후 몇 시간 안에 전염력이 있는 바이러스 보유자들을 찾아낼 수 있음
 - 이동식 신속검사센터는 신속 검사기기를 통해 증상이 시작된 지 7일 이내의 사람들을 검사해 결과 도출

정책 성과

- 시범프로젝트 시행 6주 후에도 코로나19 양성 결과 건수는 상당히 낮게 나타남
 - 2020년 12월 기준으로 최초 검사에서 양성률이 약 1.4%, 두 번째 검사에서는 약 0.7%로 나타남
 - 여행자의 검역 시간을 단축한 최초의 주로 평가
- 하와이로의 여행 건수 증가
 - 검사프로그램 발표 후 항공편 예약률 증가 추세
 - 캐나다 공항에서 출발해 하와이에 도착한 여행객은 2020년 12월 15일과 1월 7일 사이 총 3,491명으로 나타남
- 이동식 신속검사센터의 신설로 확진자 신속 격리
 - 주정부에서는 앞서 2020년 11월에 캘거리와 에드먼턴 등의 검사시설에 신속 검사 키트를 전달
 - 2020년 12월 초에는 캘거리의 노숙자 보호 센터와 에드먼턴의 노숙자 자가격리 센터에서도 신속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https://www.yyc.com/en-us/travellerinfo/flyhealthyyc/covid-19testingatyyyc.aspx>
<https://calgary.ctvnews.ca/positivity-rate-from-alberta-quick-test-travel-program-hovers-at-1-per-cent-1.5260333>
<https://www.cbc.ca/news/canada/edmonton/shandro-rapid-test-plan-alberta-1.5844929>
<https://www.hawaii tourism authority.org/covid-19-updates/>
<https://dailyhive.com/vancouver/canadians-hawaii-vacations>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무료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이탈리아 피렌체시 / 사회·복지

이탈리아 피렌체시는 코로나19로 스트레스, 두려움, 불안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전화로 무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 대상은 어린이, 노약자, 의료업계 종사자 등 제한이 없으며, 심리상담 전문가와 협력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 증가
 - 이동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우울증, 무기력증, 두려움, 불안, 사람에 대한 반감 등 정서적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남
- 피렌체시, 병원, 시민단체 등은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협력

주요 내용

- 일반적인 전화 심리상담 서비스 진행
 - 피렌체시는 코로나19로 스트레스, 불안, 두려움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무료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
 - 상담은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시에 등록된 심리치료사가 상담 진행
- 피렌체 시립병원과 협력하여 어린이 심리 검사와 상담 서비스 제공
 - 자녀들과의 상호작용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조언 제공
 - 외출 제한 및 이동 금지 등의 이유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 제공
 -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어린이가 직접 상담 신청 가능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화와 이메일로 신청
- 고립된 사람들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 자가격리하는 사람, 병원에서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받는 환자 등 고립된 환경에서 정서적인 불안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 실시
 - 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 제공

- 환자들을 위한 상담 진행
 - 암, 심장병 등 이미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 시행
 - 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의료기관 방문을 거부하는 환자 증가
 - 해당 질병의 전문가를 연결하여 간단한 응급처치와 의료 정보 제공
- 피렌체 부모 연합(NOI PER VOI)과 협력하여 화상통화로 상담 서비스 제공
 - 외출 제한 시기에 미성년자 교육에 대한 조언 제공
 - 원격수업, 집에서 여가시간 보내기, 가족 간의 커뮤니케이션 등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
 - 이메일과 메신저로 신청할 수 있으며, 화상통화로 상담 진행
- 다문화 가정에 외국어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영유아를 양육하는 다문화 가정에 이탈리아어, 영어, 스페인어 등으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바이러스 예방법, 건강관리 팁 등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청소년 고민 상담 서비스 시행
 - 피렌체市와 로마의 어린이병원이 협력하여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YOUNGLE-APP TO YOUNG을 통해 공통의 고민을 가진 청소년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
 - 청소년 상담 전문가가 직접 청소년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해주는 서비스도 제공
 -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서비스 제공
 - 이 애플리케이션은 Google Play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

<https://sociale.comune.fi.it/dalle-redazioni/servizio-di-sostegno-telefonico>

<https://educazione.comune.fi.it/dalle-redazioni/famiglia-ci-6-consulenza-e-supporto-alle-famiglie-su-temi-educativi>

<https://www.regione.toscana.it/-/covid19-assistenza-psicologica-ai-cittadini>

김 예 림 통신원, yereumkim@gmail.com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인 노숙자 지원

미국 샌프란시스코시 / 사회·복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는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노숙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노숙자는 자택채류 및 자가격리 공간이 없고, 개인 위생용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취약. 시는 호텔시설을 이용하여 ‘자택대기 호텔’을 마련하고, 안전한 노숙 장소인 ‘세이프 슬립 빌리지’를 조성.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노숙자 회복 프로그램을 추진

배경

- 샌프란시스코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택채류 명령 및 샌프란시스코 도착 시 자가격리 명령 시행
 - 2021년 1월 기준으로 자택채류 명령(stay-at-home) 시행
 - 샌프란시스코 외부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도착하면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함
- 자택채류 및 자가격리를 할 수 없는 노숙자(homeless)는 코로나19에 취약
 - 2019년 기준으로 샌프란시스코 노숙자는 약 8,000명으로, 샌프란시스코 전체 인구의 1%
 - 자택채류 및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개인 위생용품도 부족하여 감염에 취약
 - 기존의 노숙자 지원 시설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택격리로 운영이 어려워 생계 문제 발생
 - 시 노숙자지원부(Department of Homelessness and Supportive Housing)는 코로나19로부터 노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

주요 내용

- ‘자택대기(Shelter-in-Place, SIP) 호텔’ 마련
 - 2020년 4월에 시작하여 2020년 11월까지 총 29개 SIP 호텔 운영
 - 2020년 7월 기준 20개 호텔 2,527개 객실이 사용되고 있음
 - 캘리포니아주 ‘프로젝트 룸키(Project Roomkey)’의 일환으로 실시
 - 2020년 3월부터 캘리포니아주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노숙자를 포함한 취약 계층에 호텔 방을 지원

- 2020년 11월 발표에 의하면, 향후 몇 달간 SIP 호텔에 총 2,3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예산 배정 완료
- 2021년 6월 말까지 수용인원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
- 안전한 노숙 장소인 ‘세이프 슬립 빌리지(Safe Sleep village)’ 운영
 - 2020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020년 11월 기준 약 25개 빌리지 운영
 - 지정된 장소에 거리를 두고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을 사각형으로 표시하여 노숙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텐트를 칠 수 있도록 함
 - NGO와 연계하여 스태프 항시 대기
 - 市 보건부(Department of Public Health)는 시설 운영 관련 임시 가이드라인 마련
 - 10명당 1개의 화장실, 10명당 1개의 개수대, 20명당 1개의 폐기물처리시설, 20명당 1개의 샤워시설 설치
 - 입구와 시설 전역에 손 소독제 구비
 -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 시 임시로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 위생용품 제공
-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격리 호텔(Isolation and Quarantine(I&Q) Hotel) 운영
 -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나 자가격리할 공간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제공
- 노숙자 회복 프로그램(Homelessness Recovery Plan) 시행
 - 런던 브리드(London Breed) 시장이 2020년 7월 발표
 -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SIP 호텔에 수용된 노숙자들이 다시 거리에서 노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
 - 향후 2년간 약 6,000곳의 노숙자 주거시설을 마련
 - 이 중 4,500곳은 장기임대 지원(Permanent Supportive Housing) 예정
 - 최근 20년간 가장 대규모의 노숙자 주거시설로 확장
- 노숙자 관련 정보 공개
 - 오픈 데이터 포털 사이트인 Open SF에 관련 데이터 공개
 - 코로나19 확진자 중 노숙자 수 공개
 - 노숙자 임시 주거시설 현황 공개

정책 평가

-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 ‘세이프 슬립 빌리지’ 운영을 위한 공간 구성, 운영 방식, 스태프의 역할, 이용자의 의무 등을 상세히 수록한 가이드라인 마련
-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노숙자 지원도 고려한 정책
 - 현 노숙자 지원시설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다시 노숙자가 되지 않도록 현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노숙자 회복 프로그램 마련

<https://data.sfgov.org/stories/s/fjki-2fab>

<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COVID-Travel-Advisory.pdf>

<https://data.sfgov.org/COVID-19/COVID-19-Cases-Summarized-by-Homelessness-Status/b45x-2crv>

<https://sfgov.org/scorecards/safety-net/homeless-population>

<https://www.sfpublicpress.org/covid-19-cases-spike-among-homeless-san-franciscans/>

<https://sfmayor.org/article/san-francisco-begins-rehousing-vulnerable-homeless-moved-hotels-part-covid-19-response>

<https://ecs-sf.org/project-roomkey/>

<https://sfmayor.org/article/mayor-london-breed-announces-plan-fund-homelessness-recovery-plan-prioritizing-housing>

<https://hsh.sfgov.org/covid-19/>

<https://data.sfgov.org/stories/s/4nah-suat>

<https://www.sfcddp.org/wp-content/uploads/2020/05/Safe-Sleeping-Streets-FINAL-2020-05-19.pdf>

이 경 선 통신원, kylee.greenery@gmail.com

세계도시동향 제497호

발행인 서왕진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1년 2월 22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